

태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2

I. 일반개황

면적	513천km ²	G D P	3,660 억 달러 ('12)
인구	67.5 백만명 ('13)	1 인 당 GDP	5,390 달러 ('12)
정치체제	입헌군주하의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Baht(Bt)
대외정책	친서방 중립노선	환율(달러당)	30.70 ('13)

-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태국은 북서쪽으로 미얀마, 북동쪽으로 라오스, 동쪽으로 캄보디아, 남쪽으로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ASEAN 국가 중 인구 4위, GDP 규모 2위인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경제국으로 전자제품, 자동차 등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며, 유적지, 아름다운 자연환경, 우수한 관광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방문 여행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입헌군주국으로 1946년 즉위한 푸미폰 아둔야뎃(Bhumibol Aduladej) 국왕이 국가원수로서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음.
- 아세안자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rea : AFTA)의 중심 국가로서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U 등과 FTA 협정을 추진하며 경제적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e	2014 ^f
경제성장률	7.8	0.1	6.5	3.1	5.3
재정수지 / GDP	-0.8	-0.7	-1.7	-2.7	-3.2
소비자물가상승률	3.3	3.8	3.0	2.2	2.1

자료: IMF.

□ 민간소비 및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2014년 5.3%의 경제성장률 시현 전망

- 태국은 자동차산업 및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발달하였음. 2012년에는 대외수요 저하 및 2011년 발생한 대홍수에 따른 산업설비 파괴 여파로 산업생산이 저조했으나 기저효과, 피해복구 관련 정부 재정지출 확대,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6.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3년에는 경기부양정책 축소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수출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둔화된 3.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4년에는 근로자 소득 증가에 따라 민간소비가 활성화되고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출이 증가하여 5.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2012년 이후 정부지출 증가로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 확대 추세

- 2012년 홍수피해 복구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산업단지 및 주거지 복구에 투입하고 113억 달러 규모의 물관리 프로그램(Water Management Program)을 실시함에 따라 정부지출이 증가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7%로 확대됨.
- 2013년에도 홍수피해 복구를 위한 투자, 쌀·고무농가 보조금 지급, 법인세 인하(23%→20%)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확대된 2.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2013년 발생한 홍수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출과 660억 달러 규모의 운송수단(도로, 철도 등) 투자 프로젝트 본격 실시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전년보다 확대된 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 유지

- 태국은 자연재해에 따른 식료품 등의 가격 변동,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등이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침. 2012년에는 임금상승, 전기세 인상, 담배 및 술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및 식품 가격 안정세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0%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소폭 하락함.
- 2013년에는 국제유가 안정, 디젤 연료에 대한 면세 확대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2.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4년에는 임금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및 자원가격 안정 등이 예상되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1%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높은 대외경제 의존도로 대외 변동성에 취약

- 태국은 ASEAN 회원국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이어 수출규모 3위인 수출주도형 국가로, 2013년 기준 GDP 대비 총수출이 약 72.0%(우리나라 54.3%)에 이르러 대외 경기변동에 취약한 구조임.
- 또한 자동차, 전자산업 등 주요 산업분야의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글로벌 기업의 생산 감축 등에 큰 영향을 받음.

□ 노동자 부족 및 포플리즘 정책으로 지속적 임금 인상

- 노동가능인구의 부족은 경제성장의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미얀마 인력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임금 관련 포플리즘 정책이 시행되어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태국 일반 노동자 2012년 월평균 임금은 약 345달러로 베트남 145달러, 인도네시아 239달러에 비해 높음.
- 노동력 부족과 지속적인 임금 상승은 동국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전자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외환위기 이후 성장동력 부재로 경제성장을 둔화

- 노동력 부족 및 임금인상 등으로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었고 노동집약적 산업이 인근 동남아 국가로 이전함. 게다가 체계적 고등교육체계 미비로 고급 인력이 부족하여 노동집약산업을 대체할 고수익 산업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실정임.

나. 성장 잠재력

□ 우호적인 외국인투자환경 조성

- 태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어 타 아세안 국가들에 비하여 외국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3년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영여건 평가(Doing Business)에서 태국은 189개국 중 18위*로, 전력수급(12위), 투자자보호(12위), 건설허가(14위)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함.
 - * 기업경영여건 순위: 중국(96위), 베트남(99위), 인도네시아(120위)
 -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한 2013~14년 글로벌경쟁력지수에서 태국은 37위(148개국)로 작년보다 한 단계 상승했으며 시장규모(22위), 거시경제 안정성(31위), 상품시장효율성(34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함.

□ 관광지로서의 잠재력 풍부

- 열대성 기후의 연중 휴양지로 청정해안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관광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음.
- 태국의 관광객 수는 2012년 2,235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과 2012년 각각 20.7%, 16.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2013년 상반기 역시 21.7%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광업은 향후 태국 경제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됨.

다. 정책성과

□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주효

- 태국은 다국적 기업이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외지향적 수출주도 경제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시장개방, 민영화, 규제완화 등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을 도모해왔음.

□ 보조금 지급 등 포폴리즘 정책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 태국은 한 해 44억 달러에 이르는 쌀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집권당인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은 최저임금 인상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2012년과 2013년 각각 최저임금을 약 40%, 26%씩 인상하였음.
- 임금인상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손실을 고려하여 법인세율을 2012년 30%에서 23%로 인하하였고 2013년에는 20%로 낮춤에 따라 향후 정부의 법인세 세수 감소가 예상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e	2014 ^f
경 상 수 지	9,946	5,918	-1,431	-6,312	1,878
경 상 수 지 / G D P	3.1	1.2	-0.4	-1.6	0.5
상 품 수 지	29,667	16,991	6,031	3,590	3,080
수 출	191,600	219,119	225,832	226,693	235,477
수 입	161,933	202,129	219,801	223,103	232,397
외 환 보 유 액	167,530	167,389	173,326	171,388	169,385
총 외 채 잔 액	100,716	104,987	133,756	178,856	185,356
총 외 채 잔 액 / G D P	31.6	30.4	36.5	44.4	42.8
D S R	4.5	3.3	3.9	4.5	4.9

자료: IMF, EIU, OECD.

□ 자본재 수입 증가로 2014년 상품수지 흑자 축소 예상

- 태국은 자동차 및 전자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자본재와 원자재 등을 수입하고 있음. 2012년에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와 주요 수출품 생산시설의 복구 미비에 따른 수출증가 둔화, 홍수피해 복구를 위한 수입증가로 전년 대비 감소한 60억 달러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함.
- 2013년에는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 부진과 홍수피해 복구에 따른 수입 증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36억 달러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4년에는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재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31억 달러 수준의 흑자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서비스수지 개선으로 2014년 경상수지는 흑자 전환 예상

- 대외경기 침체와 2011년 홍수피해로 상품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12년 경상수지는 14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 홍수피해 복구 지연으로 상품수지 흑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 송금 등으로 소득수지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2013년 경상수지는 6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상품수지 흑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행객 증가에 따른 서비스수지 개선으로 19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반정부 시위에 따른 정국 불안 장기화로 관광객 증가율이 둔화될 경우 2014년 경상수지 흑자 감소가 불가피함.

□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외환보유액 감소 전망

- 2012년 외환보유액은 1,733억 달러였으나 2013년에는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실시 전망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로 외환보유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1,714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에는 테이퍼링 본격화로 소폭의 외환보유액 감소가 예상됨.
- 2011년 총외채잔액은 1,050억 달러 규모였으나 수출입 신용결제대금 증가, 환헷지 등으로 단기외채가 증가하고 통화가치 하락 및 대규모 프로젝트의 시행 등으로 중장기 외채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1,85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반정부 시위에 맞서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

- 2013년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총리가 친오빠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 등 정치사범 사면을 위한 법안 통과를 강행한데 대해 야당 및 중산층 세력이 반발하여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2014년 1월 22일 비상사태를 선포함.
-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자 2013년 12월 잉락 친나왓 총리가 의회해산 및 2014년 2월 조기총선 실시(기준, 2015년 말 예정)를 선언하였음. 하지만 저소득층의 절대다수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여당의 선거 승리 가능성이 높아 야당은 선거와 관계없는 과도의회 및 과도정부를 주장함.
- 반 탁신계 수텝 트약수반 전 부총리가 이끄는 수만 명의 반정부 시위대는 2014년 1월 13일부터 셋다운 시위를 통해 정부의 행정기능 및 도시 기능을 마비시켰으며 이에 잉락 친나왓 총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음에도 반정부 시위는 지속 중임.

□ 조기 총선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 지속으로 정국 불안 장기화 가능성

- 3개월여 동안 진행된 반정부 시위로 10여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는 등 시위가 과열되는 양상임. 2014년 2월 2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였으나 반정부 시위대의 반발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무산되고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당분간 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다.
- 태국에서는 1932년 입헌군주제 도입 이후 18차례 군사 쿠데타가 있었으며 탁신 전 총리 또한 쿠데타에 의해 실각함. 따라서 향후 군부의 쿠데타 발발 가능성 또한 상존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계층 및 지역별로 친-반 탁신 세력간 갈등 존재

- 잉락 친나왓 총리의 탁신 친나왓 전 총리에 대한 사면 법안 처리는 태국 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촉발시킴. 탁신 친나왓 전 총리는 2001년 집권이후,

포퓰리즘을 통해 농촌, 소외층, 북부 및 북동부 지방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2006년 탁신 축출 이후 반탁신 대 친탁신, 중남부 대 북부 및 북동부, 도시 중상층 대 농촌 및 소외층간의 갈등이 불거지게 됨.

-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인 반독재민주전선(UDD)은 2010년 3~5월 까지 방콕 중심가를 점거한 채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를 벌였으며 정부의 강제 진압으로 동 기간 중 88명의 사망자와 2,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 또한, 2012년 10월 잉락 친나왓 총리 퇴진을 요구하며 퇴역 장군 중심의 시암피탁 그룹(반 탁신성향) 등 2만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11월에도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138명이 체포되었음.
- 2013년 잉락 친나왓 총리가 사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반탁신 대 친탁신 갈등을 불러일으켰으며 조기총선 실시에 따라 지역 및 계층간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 있음.

□ 왕정의 권력 승계 시 정국불안 가능성 내포

- 푸미폰 아둔야뎃(Bhumibol Aduladej) 국왕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으며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쿠데타 등 현실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87세의 고령으로 향후 왕위 계승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국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태국 내에는 왕정 지지파와 공화파(반왕정)가 존재하여 왕권 승계가 사회적 갈등 및 정치체제 변화와 같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3. 국제관계

□ 인접국과의 관계 강화

-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간 평화,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ASEAN 및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 ASEAN Free Trade Area) 창설에 참여하며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함.
- 또한, 태국은 타 아세안 국가와 2015년까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 ASEAN Economic Community)를 결성하기로 함으로써 상품 관세의 철폐, 투자 규제 철폐,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회원국 간 경제정책의 조정을 통한 지역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을 통한 무역확대 추진

- 태국은 EU 등 여러 국가와의 FTA 협정 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을 통한 무역 확대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특히, 탁신 정부 이후 소규모 경제권 위주의 FTA 추진에서 탈피하여 대규모 경제권과의 FTA를 과감히 추진 중임.
 - 태국은 현재 뉴질랜드, 페루, 호주, 일본과 FTA를 기체결했으며, EU, 미국, 칠레, 인도, Bimst-EC(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경제협력체)와 협상 중임.

□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와의 영토분쟁 완화 요원

- 2013년 11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사원 주변 영토에 대해 캄보디아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태국 군병력 철수를 명령함.
 -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 부근의 프레아 비헤아르(Preah Vihear) 사원 주변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100년 이상 갈등을 지속해 옴.
- 하지만 판결 이후 태국 민족주의 세력의 반발과 섣다운 시위, 비상사태 선포 등으로 인해 정국 혼란이 확산되어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태국 군병력 철수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대외지급능력 양호

- 2013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1,714억 달러로 단기외채 637억 달러의 두 배 이상임. 경상수지 적자 및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정책으로 인해 2014년 태국의 외환보유액은 2013년에 비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감소 폭은 작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할 것으로 보임.
- 2013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 단기 68억 달러, 중장기 51억 달러로 총 119억 달러이며, 연체금액은 100만달러로 미미한 수준임.

□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외채 발행으로 외채 규모 다소 증가

- 태국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외채상환과 정부의 신중한 외채관리정책에 힘입어 GDP 대비 외채규모가 1998년 93.8%에서 2011년 30.4%까지 감소하였으나 수입 신용결제 증가, 환헛지, 외채발행을 통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2014년에는 4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은 2011년 3.3%에 불과하였으나 수입 신용결제 증가 등으로 단기외채가 증가하여 2014년 4.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국제시장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 (2013. 6)	3 급 (2012. 3)
S&P	BBB+ (2004. 8)	BBB (2003. 10)
Moody's	Baa1 (2003. 11)	Baa3 (2000. 6)
Fitch	BBB+ (2013. 3)	BBB (2012. 5)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2013년 6월 OECD CRE(Country Risk Experts) 회의에서는 태국의 정치적·사회적 불안, 정부부채 증가 추세 등을 반영하여 국가신용등급을 이전과 동일한 3등급으로 유지함.

- 태국은 S&P, Moody's, Fitch 등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모두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Fitch는 2012년 5월 태국정부가 소요 사태에 미흡하게 대처하여 정국 불안이 더욱 가중되었음을 지적하며 태국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1단계 하향조정하였으나 2013년 3월 인프라 투자 확대와 소비 촉진으로 경기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BBB+로 등급을 1단계 상향조정함.

□ 주요 ECA의 지원 태도

- 미국 EXIM :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단기 전액인수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태국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1	2012	2013	주요 품목
수출	8,459	8,221	8,074	철강판, 금은빛백금, 합성수지
수입	5,413	5,353	5,230	임산부산물, 반도체, 기호식품
교역규모	13,872	13,574	13,304	-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국교수립: 1958년 10월 1일 (북한과는 1975년 5월 8일 수교)
- 주요협정: 무역협정(1961), 항공협정(1968), 이중과세방지협정(1977), 투자보장협정(1989), 해상운송협정(2002), 문화교육협정(2004)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11년 태국과의 수출과 수입이 각각 29.9%, 31.0% 증가하며 교역규모가 139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나, 2012~2013년에는 교역규모가 매년 소폭 감소하여 각각 136억 달러, 133억 달러를 기록함.
 - 우리기업의 대 태국 해외직접투자는 2013년 9월 기준 총 785건, 19.2억 달러(누계기준)를 기록하고 있음.
 - 제조업에 대한 투자(투자금액 12.9억 달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출판 등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순임.

V. 종합 의견

- 2013년 정부부양정책 축소, 수출 둔화 등으로 3.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4년에는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소득 증가로 인한 민간 소비 증가 등으로 5.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반정부 시위 장기화로 여행객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경제성장률 둔화 가능성이 있음.
- 대홍수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지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감소하여 2013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상승한 2.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에는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대한 재정투자도 전년 대비 상승한 3.2%가 전망됨.
- 잉락 친나왓 총리가 친오빠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사면하기 위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촉발된 정국불안이 향후 친-반탁신세력을 비롯한 지역 및 계층 간 갈등으로 확대되어 정국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음.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달러화 강세, 외채 조달을 통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으로 외채규모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외환보유액이 단기 외채의 두 배 이상이며 낮은 D.S.R 수준을 감안하면 대외지급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유재준 (☎02-3779-5705)

E-mail: jjyu@koreaexim.go.kr